

차례 간소하게... 성묘는 '드라이브 스루'



자식들이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도, 부모들이 자식이 귀를 불편을 생각해 올라갔던 역귀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언택트 추석이다. 수백 년 전통을 지닌 종가 직계 가족 자녀 명단이 모여 제사를 지내고, 성묘도 드라이브 스루로 한다. 언택트 추석의 풍경은 이미 일반 가정까지 불고 있다. 담양군 대전면 시목마을의 진화삼씨 부부가 28일 타지역에 사는 네 자식, 손자·손녀들과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진씨 부부가 자녀들에게 이번 추석은 내려오지 말고 신상당부한 뒤, 손자·손녀들을 향해 하트를 그려 보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00년 종가의 '비대면 추석'

매년 명절 때면 찾아오는 문중 식구들과 종친들로 종가(宗家)는 명절 며칠 전부터 분주하다. 고요하기 그지 없는 시골 마을을 조차 추석 명절은 북적대는데, 종가는 오죽할까. 차례에 참석하는 인원만 100명에 가깝고 문중 식구부터 시작에 들렀다가 친정을 방문하는 누나·고모들까지 머무르면 사랑채, 안채, 행랑채도 가득 찬다. 음식 장만은 더하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손 마를 날이 없는 게 우리네 종가다. 떡을 하는 데만 쌀 두 가마가 넘게 들어가는 게 추석명절이다. 차례상에, 먼 길을 오는 반가운 가족들과 종가를 찾는 손님상까지 차리려면 손놀림이 바빠 수 밖에 없다.

무려 500년, 10대에 걸쳐 변함없이 이어져오며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종가의 모습이 올해는 180도 바뀌었다. 일흔 살, 여든 살을 넘은 종손들이 나서 문중 식구들에게 '이번 추석엔 고향에 오지 말라'며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성묘도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래도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전하는 고향의 정(情)마저 변하지 않았다. 한끼

"고향 오지 말라" 자녀·손자들에 전화하고 친척 만남 자체
종손 부부들만 차례 지내... "그리운 마음은 함께 나뉘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조상과 가족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커녕 오히려 애뜻해지는 모습이다. 전화로 넉넉한 한가위 마음을 전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종가 식구들이 많았다.

상상 초유의 '언택트(비대면)' 한가위로 달린 전남지역 종가들의 추석 풍경이 들려다.

담양 소재원에 터를 둔 '제주 양씨' 종가는 이번 추석 차례에는 9명만 참석한다. 평소 추석 차례상 앞에 모이는 최소 인원은 22명이다. 15대 종손인 양재혁씨는 추석을 앞두고 일일이 친인척들에게 "올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자"며 만남을 자제하자는 전화를 드렸다. 양씨는 "평소 추석 차례를 지낼 때면 종친 외에도 시댁에 들렀다 친정을 찾는 누님과 고모를 포함하면 50명 가까이 모이는데, 올해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명절 때 자녀 만남이 쉽지가 않아 아쉬워하는 친척들이 많았지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평소 같으면 추석 당일엔 종가를 찾는 문중 식구들이 80명을 넘었지만 이번 추석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귀성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식사 문화도 달라지게 됐다. 양씨는 "추석 차례상을 간소화할 수는 없지만 손님상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평소보다 마련해야 할 음식량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언택트' 한가위는 제주 양씨의 300년 성묘 문화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 양씨 가문은 추석이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조상 묘역을 찾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어린 조카들의 건강을 우려, '드라이브 스루'로 대신할 예정이다.

'남파고택'으로 유명한 나주 '밀양 박씨' 종가(규정공손 청계공파)도 사상 초유의 한가위 추석 명절을 준비중이다. 당장 서울에 살고 있는 종손 박경중(74)씨 큰 아들들의 추석 방문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300년 종가에서 종손을 잇는 큰 아들이 빠진 채 차례를 지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박씨 설명이다.

박씨는 "큰 아들 자녀가 초등학교 3·5학년이라 (올지 말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종손인 박씨 등 9남매 가족들도 모두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모두 참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찾아오는 종친들도 예년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자 종부 강정숙(70)씨는 올해 준비할 추석 음식량을 줄였다. 강씨는 "올해는 평소보다 준비하는 음식량을 많이 줄일 것"이라며 "이름도 오지 않을 것 같고, 음식 싸기려는 식구들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손놀림이 한가하진 않다. 준비한 차례상을 먹을 식구들이 줄었다고 해도 과일 세 종류와 나물 세 종류, 19인분의 밥과 국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가짓수는 예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명절 때면 종친들로 가득했던 사랑채, 안채, 문간방 등 남파고택 7개 별채도 모두 사용할 것 같지 않다는 게 종손 박씨 설명이다.

전남지역 종가 중 가장 오랜 6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나주 임씨' 종가도 30명 안팎이 참가하던 평소와는 달리, 올해 추석 차례에는 종부와 사동생 등 3명만 모이기로 했다. 또 장흥고씨 종가도 종손 부부만 차례상을 차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추석연휴 이동 자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수도권 거주자 고향방문 축감

광주시와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추석 연휴 코로나19 비상 방역대책을 마련했지만, 긴 연휴를 기점으로 제3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선 10일 넘게 신규 확진자가 없고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50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방역 의식이 느슨해진데다, 전국적으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 감염 사례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등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50명 늘어 누적 2만3661명이 됐다. 광주·전남에선 지난 17일 이후 11일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50명의 감

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발생 40명, 해외유입 10명이다. 지역발생 40명은 지난달 12일(35명) 이후 47일 만에 최저치 기록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명, 경기 13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33명으로 지역발생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코로나19 감염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자녀의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음 정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 연휴에 대비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과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난 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코로나19 입원환자 치료와 의심 증상자 진단 검사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도 정상 가동한다.

귀성객 이용 증가로 감염 발생이 우려되는 터미널, 공항, 항만 등에 대한 방역과 검역도 강화하고, 주요 관광지도 숙박 시설 방역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이용성 광주시장은 "올 추석은 가급적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 수능, 12월 3일 예정대로 치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올해 12월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

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특집 지면 안내

대선 주자 추석 민심의 승자는? ▶3면
추석 연휴 생활·안전 정보 ▶7면
운동·영화·스키로 추석나기 ▶8~11면
한가위 TV 하이라이트 ▶25~27면
KIA 추석 연휴 수도권 6연전 ▶2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추석 특집 32면 발행 30일, 10월 1·2일자 신문 쉽니다

연휴 날씨	29(화)	30(수)	10/1(목)	2(금)	3(토)	4(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2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8월 20일 오픈
T.372-6666

새삼일건설
KAIT 한국자산신탁
새삼일건설 배너 삼일루체아

홍보관: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